

다시 식탁 오르는 日 수산물 ... 수입 1년새 18%↑

지난해 3만8724t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반등 갈치 등 사고 이전 수입량 회복 ... 원산지 속여 팔기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꾸준히 줄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10년 8만4018t에 이른 일본산 수산물(소금 제외) 수입 총량은 2011년 5만6043t, 2012년 3만9614t, 2013년 3만7271t, 2014년 3만2844t으로 4년 새 60.9% 감소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입이 급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

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다가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줄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3만8724t으로 전년보다 17.9% 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작년에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가리비조개가 6637t으로 가장 많았다. 일

본산 가리비는 대부분 국산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씨알이 굵고 크기가 커 조개구이집 등을 중심으로 많이 유통된다.

이어 일본산 명태 3913t, 정어리 3228t, 우렁쉥이(멍게) 2609t, 돔 2423t, 갈치 1794t 등이 지난해 국내에 들어왔다.

아직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모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일부 어종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일본산 갈치는 2010년 수입량이 1677t이었으나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2011년 1282t, 2012년 679t으로 줄었다. 2013년 897t, 2014년 1468t으로 다시 늘기 시작하더니 작년 수입량(1794t)은 2010년 수입량을 앞질렀다.

갈치는 자원량 감소와 어린 물고기 남획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이 갈수록 부진한데다가 수입 갈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본

산 수입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반송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수입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일본산 어패류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파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전국 수산물 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가리비 총 104kg(24건)을 적발했는데 모두 일본산이었다.

작년에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달미를 잡힌 업소는 37곳, 일본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던 업소가 33곳이었다. /연합뉴스

한우·굴비 값 인상에 설 선물 새우·대게 뜬다

G마켓, 전년동기 대비 해산물 판매 2배 증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한우와 굴비 가격이 오르면서 새우, 대게, 전복 같은 해산물을 선물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은 설을 앞두고 최근 일주일(1월 15~21일)간 작년 동기 대비 신선식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해산물 판매가 2배 이상(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새우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214%) 급증했다.

최상급 대하 제품과 바로 구워 먹기 편하게 손질된 새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새우 선물세트가 잘 팔리고 있다고 G마켓은 전했다. 키크랩·비닷가재 판매는 작년 대비 2배 이상(121%) 증가했고, 대게·홍게 판매도 2배 가량(9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복 판매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98%) 증가했다. 최근 훈파티 등으로 집에서 갑각류를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우, 굴비 등의 물가가 오르는 새우와 대게 등이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G마켓 신선식품 부문 주간 인기 검색어에도 대게, 홍게, 새우 등 갑각류가 다수 올랐다.

‘한수위 청정해 킹크랩 선물세트’(2~2.4kg, 11만9000원)는 러시아 청정해역에서 조업해 국내 통관 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송해주고, ‘전라남도 완도 전복마을 횡감홍’(1kg, 5만3900원)은 살아있는 전복을 진공 산소 포장해 아이스팩과 함께 배송해준다.

한우 대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가금육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수제햄·수제소시지 판매는 작년 대비 2배 이상(106%) 증가했다. /연합뉴스



“설 선물 사고 사세요” 지역 백화점들이 설 명절 상품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24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매장서 중업원이 고객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국 휘발유 日보다 더 비싼 이유, 日당 유류세 227원 더 많아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9970달러였다. 일본(3만6222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8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4년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평균 1천825원으로 일본(1천625원)에 비해 12% 이상 비쌌다.

더 잘사는 일본의 소비자들도 한국보다 더 싼 가격에 휘발유를 구매한 셈이다.

24일 오픈넷 등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한국의 주유소 판매 기준 휘발유 가격 평균은 ℓ당 1천391원으로 일본(1220원)에 비해 여전히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양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09~2012년 4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최대 38%가량 비싼 것으

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낮은 한국에서 기름값이 더 비싼 이유는 유류세 차이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의 휘발유 세전 가격은 2005년 이후 10년간 2007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비해 저렴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2010년 808원~961원, 2011년 1008원~1180원, 2012년 1060원~1216원, 2013년 1004원~1061원, 2014년 914원~977원 등으로 한국이 최대 ℓ당 156원가량 낮았다. 반면 유류세 부과 후의 소비자 가격은 역전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둘째 주 기준 세전 휘발유 가격은 한국이 ℓ당 519원으로 일본(575원)에 비해 10%가량 저렴했지만 유류세(한국 872원, 일본 645원) 부과 후에는 12% 이상 높았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홍콩발 악재에 글로벌 증시 하락

외국인 수급변화 개선 힘들 듯

화학·제약 등 중소형주 대응을

최근 중국발 악재로 하락세를 보이던 글로벌증시는 지난 주에도 홍콩발 악재가 추가되며 주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주 후반 유가반등과 글로벌 추가양적완화 기대에 극적으로 반등하며 마감했다.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하에 따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통화의 절하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지난 수요일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와 위안화 가치급락이 홍콩으로 파급되면서 홍콩달러화 가치는 8년만에 최저치로 급락하고 홍콩H지수는 7년만에 장중 8,000선이 붕괴됐다. 홍콩정부의 즉각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향후 달러페고제를 포기할 것인바 글로벌IB업체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자자의 불안이 확산되었다.(달러페고제: 자국통화가치가 미국달러화 대비 일정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묶어두는 제도. 홍콩은 1983년부터 통화가치를 미국달러당 7.75~7.85 홍콩달러 범위내에 묶어두는 달러페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안화가 지난해까지는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며 위안화와 홍콩달러의 방향성이 일치해 달러페고제 실시가 시장의 기대치와 일치하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위안화가 달러대비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 홍콩달러가 위안화가 아닌 미국달러에 대해 페고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고민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위안화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으나 생각하는 시장참여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콩금융청에서도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있듯이 달러페고제 포기여부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러페고제 폐지 우려는 매우 낮고 일시적인 헤프닝이 될 것이다.

지난주 증시전망에서 1850선 이하에서는 KODEX레버리지와 실적호전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했다. 코스피지수가 수요일과 목요일 홍콩악재로 1830선까지 하락했지만 마리오드라기 ECB총재가 21일 ECB통화정책회의와 다보스포럼에서 추가양적완화를 시사하고 일본은행 구로다하루히코 총재도 추가부양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일본 니케이지수는 금요일 하루만 5.8% 급등하며 아시아증시의 급반등을 선도하였다. 코스피지수도 금요일까지 외국인인 금융유기 이후 최장기간인 35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지만(누적 6조 2464억) 금요일 1500억원대로 순매도 규모가 축소되었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기관이 이를 연속 3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임에 따라 1879포인트로 급등하며 마감하였다.

연초증시전망에서 상저하고를 예측했는데 연초부터 시장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1분기 하단으로 예상한 1800선이 너무 빠르게 진입했다. 아직 4분기 실적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발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과거 2월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번 반등으로 1800선초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므로 1분기는 1800선 초반과 195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흐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이번주도 외국인의 수급변화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주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유가 하락이 진정되는 모멘텀이 나온다면 화학주와 제약, 반도체 장비, 전기차 부품주 등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울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용6억)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용1억2천)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값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